

# GIST 반도체공학과 학생들, 학과장과 함께 CES 2026에서 배우다

- 반도체공학과 2기생(2025년 입학) 18명, 홍성민 학과장 등과 함께 CES 2026 공식 참관... 2개 학기 이수한 반도체공학과 재학생 전원 CES 참관 기회 제공, 글로벌 실전형 인재 양성
- "글로벌 ICT 산업의 발전 방향 직접 볼 수 있어 전공 이해 넓히고 진로 구체화하는 계기 돼"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전시장을 방문한 GIST 반도체공학과 2기생 학생들이 행사장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지난 1월 6일부터 9 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을 참관하며, 글로벌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교육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CES 참관에는 2025년에 입학한 반도체공학과 2기생 18명과 홍성민 학과장, 권동석 교수가 함께했으며, 지난해 1기생 22명이 참관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공식 견학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전시장 곳곳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선보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등 첨단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반도체 산업 전반의 흐름과 기술 발전 방향을 입체적으로 이해했다.

특히 반도체가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는 현장을 경험하면서, 이론과 실험으로 익힌 지식이 구체적인 산업적·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전시장을 방문한 GIST 반도체공학과 2기생 학생들이 (왼쪽) 파가니(Pagani)사의 하이퍼카를 관람하고, (오른쪽) 복스(VOXX)사 부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을 촬영하는 카메라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GIST 반도체공학과는 미래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산업 이해와 문제 인식 역량을 키우는 현장 중심 교육의 일환으로 학사과정 2개 학기를 이수한 재학생 전원에게 CES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휴학이나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졸업 전까지 1회 참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글로벌 기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맹성현 학생은 “세계적인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의 전시를 통해 차세대 기술이 실제 산업과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ICT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을 직접 비교·분석할 수 있어 전공 학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성민 반도체공학과장은 “교재와 논문으로만 접하던 첨단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로 연결되는지를 직접 목격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느낀 충격과 설렘이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가 되어, 미래 시장을 주도할 글로벌 반도체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신설된 GIST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로, 2028년까지 매년 30명씩 총 150명을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선발한다. GIST는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과 연구 경쟁력을 겸비한 차세대 반도체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